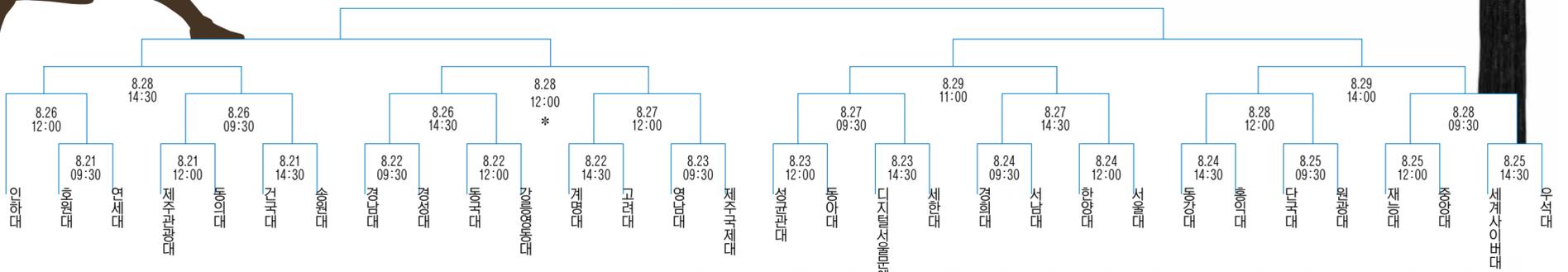


# 대학야구 첫 '빛고을 열전'

오늘 개막, 31개팀 격돌... U대회 테스트 겸해 이진열·장채근·문희수 등 스타감독 지략 대결  
농협중앙회 "대회 성공 개최 물심양면 도울 것"



■ 대진표 장소: 광주 무등경기장(\*는 KIA 챔피언스필드)



### ■ 지역 출신 감독



'야구 메카' 광주에서 대학야구의 짜릿한 승부가 펼쳐진다.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1일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1개 대학팀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된다.

각 팀을 대표하는 선수 및 지도자, 야구 관계자 등 2500여명이 발길을 하면서 '야구 메카'에 아마 야구의 뜨거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2014시즌 대학야구의 대미를 장식할 이번 대회 개막 경기는 21일 오전 9시30분 군산 호원대와 연세대의 대결로 진행된다. 오후 12시에는 제주 관광대와 부산 동의대가 16강 티켓을 다투고, 고천주 감독이 이끄는 광주 송원대는 건국대와 오후 2시30분 대결을 벌인다. 25일까지 하루 세 경기가 진행, 16강 진출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고향에서 펼쳐지는 야구 축제 현장을 찾는 지역 출신 사령관들의 지략 대결에 관심

이 쏠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동국대 이진열 감독이다.

타이거즈 야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진열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3관왕을 지휘하며 동국대를 대학 최강팀으로 등극시켰다. 이번 대회는 동국대의 4관왕 도전무대이기도 하다.

해대 시절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노지심'과 '꽃대지'의 대결도 준비됐다. 홍익대 장채근 감독과 동강대 문희수 감독은 24일 오후 2시30분 적장으로 만나게 된다.

2011년 가을 만년 하위였던 홍익대 사령관 맡은 장채근 감독은 '투지의 야구'로 지난 시즌 춘계리그와 대통령기 준우승을 차지한 뒤, 지난 6월 열린 하계리그에서 단국대를 꺾고 처음으로 우승 행거를 받았다.

문희수 감독도 올 시즌 하계리그전 2부리그 패권을 차지하며 동강대 첫 전국대회 우승을 이룬 것은 물론 박준표·김지훈(이상 KIA), 이찬우(NC) 등 프로선수를 배출하며 동강대 야구 부흥을 이끌고 있다. 대회 첫 경기에서 난적을 만난 동강대는 패기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타이거즈의 또 다른 레전드 '야구계의 신사' 김준환 감독의 원광대도 출사표를 던졌다. 올 시즌 KIA 내야에 새 활력을 불어넣은 유격수 강한울의 스승이기도 한 김준환 감독은 지난해 하계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광주 야구 발전에 빼어놓을 수 없는 '스승' 허세환 감독도 인하대를 이끌고 반가운 걸음을 한다. 허세환 감독은 '메이저리거 3인방' 서재용·김병현·최희섭(이상 KIA) 등을 양성하며 광주일고 화수분 야구를 이끈 인물. 허세환 감독은 인하대 부임 다음해인 지난 2012년 10년 만에 모교의 하계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올 시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도 준우승을 달성했다.

오는 25일 프로야구 신인 지명을 통해 프로무대에 진출할 미래의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편 대한야구협회(회장 이병석)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협회(회장 나훈)가 주관하며 지역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지역 대학야구 기반 다지는 무대로 삼겠다"

### 나훈 광주시야구협회장



"패기 넘치는 대학야구를 광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야구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나훈 광주시야구협회장이 21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제 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학리그 전국대회다. 지난 6월 하계리그 예선 경기가 광주에서 열렸지만 결승전까지 치러지는 전국대회는 처음이다.

광주 개최를 이끈 나 회장은 "대학 전국대회가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된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다. 광주가 고교야구로 이름난 곳이지만 대학야구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전국적으로 대학야구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대학 야구의 기반을 다지는 무대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야구 중심 도시로 이름난 광주지만 대학 팀은 올 시즌 4년제 리그에 편성된 송원대와 2년제인 동강대 두 팀에 불과하다. 지역 고교야구의 추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무대이기도 하다.

나 회장은 "유니버시아드 대비해서 예행연습을 한다는 기분으로 조직위원회와 함께 광주시와 광주야구협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대회를 준비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대학야구를 통한 아마야구 분위기 조성도 함께 초·중·고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얼마 전 방랑 리를 야구장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식 경기장을 갖춰야 한다. 부지를 확보해서 정식 구장을 조성하는 게 소망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첨단 중학교 야구부 창단 문제다. 첨단 지역에 어린이 야구 인구가 많이 늘었고 여전히 광주의 야구 열기는 뜨거운데 그걸 수용할 중학교 팀이 부족하다. 좋은 인재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팀 창단이라는 지역 야구의 큰 숙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길이 ~5m, 두께 100mm

**통원목가구** 광주 최초판매 (가정용 · 업소용 · 인테리어)



☎ 1899-0240  
www.hong79.com